



대림 제3주일

하느님, 하느님 백성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공동체 소식]

■ 성탄 미사 안내

- 대림 제4주일 미사: 12/24(주일) 오전 11:00.
-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12/24(토) 오후8:00, 미사책 127쪽.
- ※ 예물 준비: 구유 예물, 미사 예물, 성경쓰기 예물
-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12/25(월) 오전11:00, 미사책 141쪽.
- ※ 예물 준비: 미사 예물, 기도 선물.

■ 2017년 성탄 행사 안내

- 주제: “나눔”(Ubi caritas et amor, Ubi caritas Deus ibi est: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 기쁨 나눔 : 12월 24일 성탄 성야미사 후, 성당 친교실.
- 기도 나눔 : 12월 25일 성탄 미사 후, 성당 친교실.(대림 시기 동안 가정별 기도 나눔, 대상가정에 성탄카드전달 등)
- 재능 나눔 : 12월 25일 성탄미사 후, 성당 친교실.(재능 기부+재능 잔치)
- 선물 나눔 : 12월 25일 성탄미사 전에 선물봉헌, 미사후 친교실에서 공동의 선물나눔.(\$20 내외의 선물, 무기명)

■ 홀리 트리니티 본당 신부님의 성탄절 선물에 감사합니다.

■ 본당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12월 정기회의

- 일시: 오늘 교중미사 후.
- 장소: 나자렛 교육관.

■ 이민자들의 날 미사 안내

- 일시: 2018/1/14(주일) 정오 12:00, 다과회 오후1:00-2:00.
- 장소: Cure' of Ars Catholic Church, 9401 Mission Rd, Leawood, KS 66206.

■ 성당행사 관련 사진 자료를 수집합니다.

- 내용: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전례부장(박 로마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주소: taeju@postech.ac.kr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91	212	167	88
차 주	89	219	160	93
성탄성야	99	210	163	102
성탄 낮	102	107	175	484

■ 전례 봉사자 및 복사

	해설자	제1독서	시종 복사
		제2독서	향 복사
금 주 (12/17)	김주연 세실리아	박태주 로마노	문예나 요안나
		김명희 리드비나	문호진안토니오
차 주 (12/24)	김대연 요셉	김병철 베네딕도	차민서임마누엘
		김경희스콜라스티카	이원준 요한
성탄성야 (12/24)	박태주 로마노	강영진 라파엘	김정원 안젤라
		한춘희 라파엘라	이원준 요한
성탄 낮 (12/25)	최은미 아녜스	김정원 베드로	문예나 요안나 정예진 한나
		김말자 세실리아	문호진안토니오 정예찬 미카엘

■ 애찬 봉사자

금 주	백문주, 최은미, 김진미, 윤지선
차 주	장보혜, 장유정, 김수연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로렌스
차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10	45명	291달러	320 달러
(총 2세대)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12월 17일

-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자선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이 하느님 나라의 평화와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주님 은총으로 우리에게 깨끗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구세주께서 오시는 길을 정성껏 준비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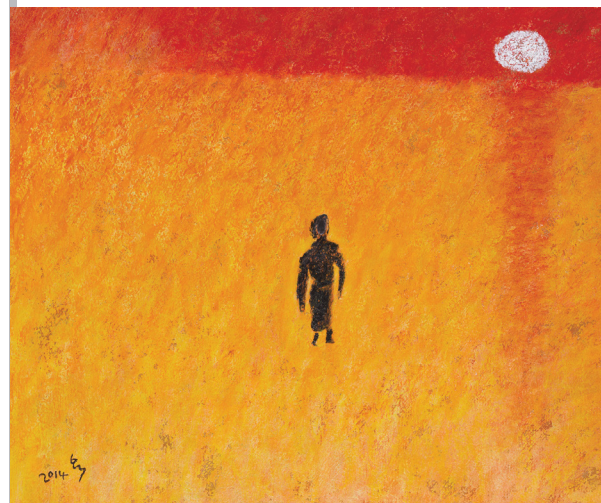


그림 묵상 '빛의 증인'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 1,6-8)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전해 줍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백성들에게 예고하기위해 파견된 사람입니다. 영원한 빛의 증인이 된 그는 어둠 속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를 찾아 오시는 가장 큰 희망이신 분을 알려주었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시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루실 일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1,1-2ㄱ.10-11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라.>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이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5,16-24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8.19-28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모르는 분이 계신다

제1독서로 봉독한 이사야서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메시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주 하느님의 영이 메시아 위에 내리시어 가난한 이들, 마음이 부서진 이들, 잡혀간 이들, 갇힌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를 파견하시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신랑이신 하느님께서 신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로움의 겹옷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봄을 맞이하듯 모든 민족들 앞에도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두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한도 하느님께서 보내신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빛을 증언하라고 파견된 인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을 정화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제와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요한이 활동할 당시 에세네파 사람들은 두 명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는 사제 메시아요, 또 하나는 임금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사두가이파와 마찬가지로 사제계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이들이었는데, 사제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이 사제계 메시아로 백성들을 정화하는 분이 아닐까 하고 여겼던 듯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서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보낸 이들은 바리사이들이었는데,(요한 1,24) 그들은 요한을 두고 “엘리아”냐고 묻습니다. 구약성경 예언서 마지막 편인 말라 3,23에 보면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아를 보내리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메시아가 아니면 혹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엘리아인지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요한은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 예언자”인지 묻습니다. 신명 18,15에서 모세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줄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

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 예언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라고 묻습니다. 이에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밝힙니다. 자신은 오직 메시아에 관해 증언하러 온 소리에 불과하며, 자신 뒤에 오실 분, 곧 메시아가 계신데, 자신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요도 합당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하느님 일에 있어서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이런 식으로 베타니아에서 다가오실 예수님의 신원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우리 곁에 메시아가 이미 와 계시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두고 “어둠”(요한 1,5)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시어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빛으로 우리 눈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요한이 증언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 빛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언제나 기뻐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하신 하느님께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반드시 빛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고해성사

고해성사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누구나 부담을 느끼며 임하게 되는 성사지만, 잘 준비해서 고해성사를 받으면 하느님과 형제들 앞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죄 중에 살아가기 마련인데, 이 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가톨릭교리에 따르면 세례를 통해 그때까지의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받고, 세례 후에 지은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습니다. 죄는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저지른 잘못된 만큼 자기 스스로 양심을 살피고 무슨 죄를 얼마나 저질렀는가를 곰곰이 살피고 반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찰(省察)이라고 합니다. 성찰을 통해 잘못된 일들이 마음에 떠오르면 그 죄에 대해 뉘우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 마음아파하는 것인데 이것이 통회(痛悔)입니다. 진심으로 통회를 했으면 고해사제에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마음을 열고 타인과 화해하듯, 고해성사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느님과 교회 앞에 마음을 열어 화해와 용서를 비는 것이며 나아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입니다. 통회자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고해사제는 정해진 사죄경을 염(念)하고 속죄의 선행을 정해 줍니다. 이것을 보속(補贖)이라고 하는데, 고백자는 고해소를 나와 지정받은 보속을 바쳐야 합니다. 고해사제는 고해소에서 들은 고백의 죄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비밀을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교회법에 따라 모든 신자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고해성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한 번의 고해성사는 부활 시기에 이행되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시기에 고해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시기나 다른 때에라도 받아야 합니다.(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90조 참조)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자주 봄으로써 양심을 기르고 나쁜 성향과 싸우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성령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은총을 받습니다. 고해성사는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회복하고 마음의 평화와 양심의 평안함을 얻으며 하느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는 기쁨의 성사입니다.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올바르게 기다리기

기다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기다리던 분보다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바라는 방법으로
내가 바라는 곳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길
그것이 우선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자리에
그분 자체로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요한 1,8)



임의준 신부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